

재즈가 흐르는 '열린 소극장' 작가와 점심·해설 있는 영화



내일 광주지역 문화행사 다채
한희원 작가와 '시립미술관 런치토크'
연극·영화 할인...도서관서 작가 강연

봄내음이 물씬 풍겨오는 3월 '문화가 있는 날'인 오는 28일, 광주지역의 주요 문화시설 등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은 클래식, 재즈, 실용음악 등 다양한 음악이 가득한 '문화가 있는 날 열린 소극장'을 이달부터 선보인다.

'문화가 있는 날 열린 소극장'은 시민이 생활 속에서보다 쉽게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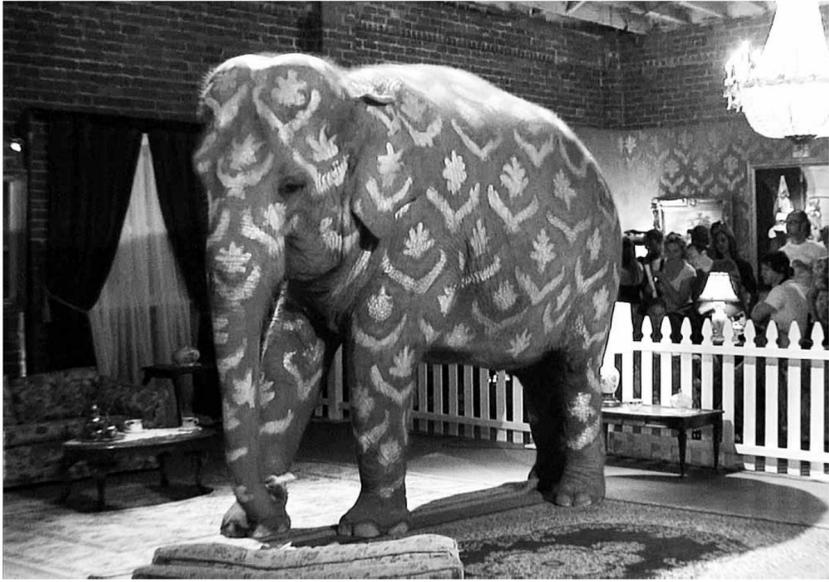
첫 공연은 '윤덕현 JAZZ Quintet'을 초청해 재즈 음악으로 꾸민다. 이번 공연에서는 'Dream a little dream of me', 'Only Trust Your Heart'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윤덕현 JAZZ Quintet'은 재즈 보컬리스트 윤덕현을 중심으로 박수용(색소폰), 강윤숙(피아노), 김성광(베이스), 김민호(드럼)등 5명으로 구성된 그룹이다.

'문화가 있는 날 열린 소극장'은 공연장 객석의 30%를 문화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것 외에도 관람객 전원에게 공연 후 기념품을 제공한다. 4월 공연은 25일 '앙리머스'의 퓨전재즈&팝 밴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석 무료. 공연문의 062-670-7943.

광주시립미술관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올해부터 두 가지 기획을 새롭게 시작한다. 시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미술관 런치토크'는 예술가, 문화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 함께 점심을 먹으며 강의를 듣고 대화하는 프로그램이다.

낮 12시 열리는 첫 토크에는 한희원 작가가 참여하며 이후 서예가 이돈홍,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등 작가들이 참여한다. 또 장민환 조선대 교수가 '미술관-갤러리 전시 이야기'를 들려주며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가 '상상된 경계들'을 주제로 열리는 2018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그밖에 이무용 전남대학교 교수의 '광주를 문화도시 공간으로 만들기', 황봉년 전라도닷컴 편집장의 '전라도 1000년 이야기', 전교필 대인예술시장 총감독의 '전라도 여행 이야기'가 이어질 예정이다. 무료. 문의 062-613-7153.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은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프로그램을 오후 3시 진행한다. 2016년부터 진행된 미술관 시네마를 통해 미술가의 삶과 그들의 치열한 예술혼을 만나온 미술관은 올해부터 영화평론가 조대영씨를 강사로 초빙, 단순한 영화관람만이 아닌 작품 이면에 담긴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에서 상영되는 '선물가게를 지나야 출구'.



재즈 보컬리스트 윤덕현 한희원 작가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계획이다. 조대영씨는 2000년 광주비엔날레 영상큐레이터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광주 독립영화관 프로그래머와 영화평론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영화 '선물가게를 지나야 출구'로 거리화가인 뱁크시가 직접 연출한 다큐멘터리다. 뱁크시는 답장에 허가없이 스프레이 그래피티를 그려 기성관습과 제도를 비판하는 거리의 예술가다. 원래는 감독이 있었으나 뱁크시가 감독의 작품에 만족하지 못하고 직접 영화를 완성했다.

앞으로 빈센트 반고흐,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파블로 피카소, 앤디 워홀, 프리다 칼로 등의 이야기를 담은 '팩토리 걸', '프리다', '바스키아', '열정의 랩소디' 등을 함께 감상할 예정이다. 문의 062-613-5390.

연극 '수상한 흥신소 2탄'도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28일 오후 8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기본좋은극장. 초

연 이후, 전국 5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연극 '수상한 흥신소 2탄'은 영혼을 보는 청년 '오상우'가 죽음을 눈앞에 둔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야기다. 티켓가격 1만8000원. 문의 1600-6689.

광주시립미술관도서관은 오후 7시 지역동화작가들과 독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따끈따끈 동화이야기' 행사를 운영한다.

'이봄해 햇살이 짙'의 저자 김두빛 작가의 진행으로 안수자, 윤미경, 염연화 작가들과 함께 '동화작가에게 듣는 동화의 탄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북토크와 '생각을 키우는 책 읽기(독서코칭)'를 주제로 일곡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정복현 작가의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Hymn양상발'의 클래식 공연, 어린이 시낭송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준비돼 있다. 어린이 및 동화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613-7811, 7812.

이밖에 광주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후 7시 영화 '인어공주'를 무료로 상영하며, 금호평생교육관에서는 오후 6시30분 영화 '재삼'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일상 공간에서 펼쳐지는 감성콘서트 '집편'은 문화가 있는 날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이번 달은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이석훈이 불과 어울리는 감미로운 노래를 들려줄 예정이다. 공연 실황은 네이버TV와 V앱을 통해 생중계한다.

그밖에 이날 개봉하는 스릴러 영화 '7년의 밤'과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 등 전국 350여개 영화관에서 오후 5~9시 상영하는 영화를 5000원에 즐길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씨알사상' 함석헌 생애와 철학

김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종교철학적 탐구' 출간



"함석헌의 사상은 철저하게 합리성을 추구하지만 난해한 형이상학이나 현학적 논리보다는 실질적인 가치론 및

삶의 철학(실존철학 혹은 생활철학)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知)·정(情)·의(意)의 조화로운 통합, 그리고 감성·지성·덕성·영성의 변증법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씨알사상'의 창시자 함석헌(1901~1989)은 실천적이고 영성적인 삶, 비폭력 저항의 삶, 한국 민중신학의 초석을 마련하는 등 선비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삶을 살았던 선각자였다. 신행일지(信行一致)와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추구하고 이를 삶에서 구현하기 위해 애썼던 시대의 어른이었다.

전남대 윤리교육과 김영태 명예교수가 '함석헌의 사상과 삶에 대한 종교철학적 탐구'(전남대출판문화원)을 펴냈다. 책에는 '한국의 간디'라 불렸

던 함석헌의 사상적 토대와 씨알민중론, 평화사상 구현 등 생애와 철학 등이 오롯이 담겨 있다.

저자는 함석헌의 모든 사상과 이상은 한국 민중들의 삶이 평화로운 가운데 민주적, 자주적으로 상상하는 것을 기원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고난받는 중'에 근거한 함석헌의 사상은 결국 미래의 희망으로 수렴된다고도 설명한다.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돼 있다. 서론을 제외한 각각의 장은 '함석헌의 생애, 영적 순례 그리고 사상적 토대', '이웃종교 섭렵과 원용', '한국그리스도교 비판', '새 종교론과 종교다원적 삶', '20세기 한국민주주의의 창도자' 등이다.

저자는 "함석헌을 존경한 나머지 찬양일변도 내지 송배까지 하다보면 그의 인격과 사상에 대한 왜곡이 생성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그가 살았던 암울한 시·공적 상황에서 빛이진 편견이나 생각의 오류 혹은 과도한 행위 등을 찾아내어 수정 보완 내지 재해석하는 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

김탁환 장편소설 佛 '카멜레온 문학상'

'방각본 살인사건'

김탁환 작가의 장편소설 '방각본 살인사건'이 프랑스 리옹3대학교에서 주는 '카멜레온 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출판사 민음사가 26일 전했다.

카멜레온 문학상은 리옹3대학 100명의 학생 심사위원들이 뽑는 상이다. 이 대학교는 매년 한 나라를 지정해 그 나라와 관련한 여러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문학 작품을 뽑아 카멜레온 문학상을 준다. /연합뉴스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한국'의 해'로 지정해 한국문학 작품들을 소개해왔다.

이번 카멜레온 문학상에는 김탁환 작품을 비롯해 김연수 작가의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최종 후보로 올라 경쟁했다.

'방각본 살인사건'은 18세기 말 정조 시대를 배경으로 박지원, 홍대용,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백동수 등 젊은 실학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추리소설이다. /연합뉴스

오영상 전남문화재단 사무처장 직권면직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오영상 사무처장에 대해 직권면직 처리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재단 인사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오 사무처장에 대해 "직권간 화합과 통솔 애로 및 건강상의 이유로 직권면직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개인 건강상의 이유와 최근 불거진 재단 간부의 성희롱

파문 등이 인사 조치의 한 이유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오 사무처장의 임기는 오는 7월까지다.

한편 오 사무처장의 직권면직에 따라 공석이 된 사무처장은 심재명 사무부처장이 맡게 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인사권자(재단 이사장)인 새 도지사가 선출되기 전까지 당분간 사무부처장 직무대행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